

# 蘇聯의 變化가 北韓에 미치는 영향

김 항 원

제주대

## I. 머리말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실시한 이래 소련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변화의 요인은 복합적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산주의 체제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인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련 사회의 物的上臺를 이루고 있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1990년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모스크바를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5일 동안 모스크바를 보고 느낀 것은 단편적이고 극히 제한된 범위일 수 밖에 없지만,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교수들과의 장시간에 걸친 간담회와 거기서 만난 在蘇 한인들의 대화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간담회와 대화 중에 들은 내용은 상세히 기록을 해 두었다.

먼저 소련의 변화 요인과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내용들의 대부분은 모스크바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기술한 것이거나 모스크바에서 구입한 서적에 있는 것들임을 밝혀둔다. 다음에 소련의 변화가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맺으려고 한다.

## II. 蘇聯의 變化 要因

소련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가장 국토가 넓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밀재배 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넓으면서도 식량이 모자라서 최대 수입국이 되고 있으며

소비재가 모자라서 상점은 텅비어 있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매일 같이 긴 줄을 서고 있으나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0년초까지 그 액수는 1,200억루블에 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는 수십만명의 실업자가 있다. 또한 소련에서 4천만명 이상(7인중 1인)은 빈곤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sup>1)</sup>

물론 소련은 최소한도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혜택은 무료이지만 식량과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모자라 외국에서 수입하여 충당해야 되는 실정이다. 모스크바의 백화점을 돌아본 사람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상품이라야 의류, 모자, 비누, 치약, 약세사리 등이 빈약하게 진렬해 있어 살 것이 없다. 그의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이나 거리를 돌아 보아도 그림이나 전통 인형들을 팔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모스크바에는 달러만 받는 상점이 여러 곳에 있으며 거기에는 비교적 물건이 많다. 또한 달러로는 암시장에서 어떤 물건이든지 살 수 있고 공정한율 보다 10배를 더 받는다. 환율체제가 3중구조인 셈이다. 공정한율은 1\$에 6루블, 암시세는 1\$에 12루블, 달러로 구입시는 1\$에 0.6루블이다. 외국인들이 택시를 탈 경우는 달러나 말보로 담배를 주어야 갈 정도가 되고 있다.

소련 화폐의 약 20%는 지하경제의 채널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지하경제의 종사자들은 국영공장에서 훔친 물건이나 수입품을 암시장에서 팔고 있으며 부패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 그 결과 국영상점에는 상품이 모자라고 계속해서 줄을 서고 있으며 사회적 긴장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sup>2)</sup>

모스크바의 어디에서나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담배 가게, 쥬스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간이 상점, 맥도날드 햄버거집, 백화점의 옷 판매대 등 가게 앞에는 으레 줄서있게 마련인데 상품은 빈약했고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줄서는 것이 일상화 되버린 상태인 것 같았으며 무표정한 사람들이 많았다. 모스크바에는 생필품 구하기가 어려워 말보로 담배, 스타킹, 볼펜, 비누, 치약 등은 매우 값진 선물이며, 한국제 운동화 두켤레이면 한달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청바지 한벌이면 거의 한달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

1) Leonid Korenev, *The Soviet Economy*, trans. M. Latsinova (Moscow : 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1990), pp.25~26.

2) Ibid., p. 45.

이와 같은 소련인의 궁핍과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산주의 체제의 구조적인데 있는 것 같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강하며 자유롭게 자기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삶의 보람도 느끼고 남과 경쟁하면서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자연적 질서를 무시한 공산주의 체제를 택한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는 토지와 생산수단의 국유 내지 공유, 공익 우선, 계획경제와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수에 차이가 없으며 경제활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생산성의 향상과 창의성의 계발이 이루어지가 어렵다. 소련 학자도 소련인의 배고픔의 원인을 국영농장체제에서 찾고 있다. “소련인의 배고픔의 원인은 1929~1931년에 강요된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체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 체제의 유전자형은 그 속에 배고픔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sup>3)</sup>

한편으로 소련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중공업 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규모가 큰 경제 발전을 추구한 결과 엄청난 자원의 낭비와 소비재의 부족, 생산성의 저하, 창의성의 결핍 등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어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베르만 방식 등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의 이윤 도입 방식도 도입하고 개인이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터밭도 인정했으나 경제적 위기는 극복할 수 없었고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이 경제적 위기는 공산주의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체제개혁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체제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체제존속 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체제개혁과 新思考를 강조하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소련의 정치인들도 대다수가 페레스트로이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 같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말하는 소련학자들도 있다.

### Ⅲ. 蘇聯의 變化 樣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세가지 주요 분야 즉 외교정책, 개방(glasnost) 및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sup>4)</sup> 외교정책 분야는 가장 성공을 거두어서 서방 세계와 신

3) Ibid., pp. 29.

4) Ibid., pp. 29~30.

데땅뜨를 맞이하게 되었고 美 蘇간에 핵무기 감축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질서가 구축되고 있으며 동구라파에 혁명적 변혁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개방>은 소련사회를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유도하고 있으며 소련인들로 하여금 소련의 위치를 깨닫게 하였다. 개방정책을 쓰기전까지는 소련인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잘 산다고 생각하였다. 개방후에 외국에 나갈 기회도 많아지고 관광객을 통해서 외국과 비교하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들은 더 잘 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라게 되었다. 또한 왜 소련은 못살며 식량과 구두와 생필품을 수입하여야 하는가 하는 강한 의문과 불만과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가장 성공을 거두지 못한 분야가 경제분야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도 생필품이 모자라서 상점 앞에 줄을 서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별로 달라진 것을 못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도 담배와 빵의 부족 상태는 심각한 것 같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어서, 소련의 변화 양상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政治적 變化

정치적으로는 그 동안의 절대주의하의 공산당 일당지배와 계급독재를 포기하고 다원주의에 입각한 다당제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복수후보제, 실질적인 선거 운동의 보장, 투표절차의 형식주의 배제 등 선거제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져 인민의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소련에서 급진개혁주의자인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공화국 선거에서 당선을 가져왔으며, 동유럽 5개국(동독,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자유선거가 이루어져 의회민주주의 새 길이 열리게 되었다.<sup>5)</sup>

연방문제와 민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민족문제는 복잡하고 모순이 많다.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옐친은 주권선언을 했고 리투아니아는 강력히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는 독자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겠다고 하고 있고 백 러시아에서는 공화국 통화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군대는 각 공화국에서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연방제는 존속해야 된다는 것이 대세이며 각 공화국에 자치권이 많이 허용되는 좀 더 유연한 연방이 될 가능성

5) 高性俊, “社會注意圈의 변화요인과 北韓體制的 변화가능성” 한국정치학회 국내학계학술대회 발표요지, 1990. 8. 2~22. pp. 4~5.

이 높다. 즉 중앙정부는 국방과 재정을 담당하고 각 공화국은 자주적 독립국가로서의 동맹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 2. 經濟的 變化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완화해서 개인소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 계획·명령경제 체제를 수정해서 자율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 예로 소련의 최대 공화국인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가 지난 9월11일 5백일안에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급진개혁안인 〈샤탈린 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 시킨데 이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최고회의에서 급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샤탈린 案〉의 지지를 표명했다. 이로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마련 해 9월10일 부터 개최중인 연방 최고회의에서 상정될 최종안은 〈샤탈린 案〉이 주축을 이룰 것이 확실해졌다. 이 샤탈린안은 급진개혁과 엘친과의 타협으로 마련된 것으로 공화국의 경제주권 인정, 대담한 私有化추진, 재정재건, 가격 개혁 등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5백 일 이내에 기업의 70% 이상을 주식회사로 전환, 생활 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가격자유화, 국유재산의 대폭 매각, 토지 및 주택 매매의 자유화, 주거제한 철폐, 주식 및 노동시장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소련의 경제개혁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시장경제를 하면 큰일난다고 선전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소련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시장경제를 반아드릴 토대가 빈약하다. 소련인들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며 경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소련의 경제발전에 큰 장애는 소련인들의 의식이나 정신이 문제인 것 같다. 또한 소련의 지방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부문에서 개혁에 대한 저항을 보면 “국영농장과 집단농장 체제를 포기하고 독립적인 농업경영체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소련의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3백만 관리인들로부터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sup>7)</sup>

공장경영면에서의 변화의 일단을 보면, 과거에는 슬로건을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

6) 世界日報, 1990. 9. 15. 5면.

7) Leonid Korenev, op. cit., p.29.

시키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다. 일례로 공장내에 식료품 가게를 만들어서 종업원들이 시내 상점 앞에서 줄서는 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또한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씨클벨(사진, 미술, 축구 등)로 여가를 선용하게 한다든지 운동시설을 마련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다.

### 3. 社會的 變化

글라노스트(개방)에 의하여 이념에 있어서 획일주의가 완화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대학교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는 한국에서도 듣기 어려운 소련사회에 대한 자기비판이 행해져서 놀라게 하기도 했다. 마르크스의 이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나 레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시대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마르크스와 레닌에 까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TV에서는 미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미국의 비디오가 방영되고 있다. 복장도 다양하고 거리의 분위기도 비교적 자유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전에는 많았다고 하는 선전 구호가 거리나 대학에서도 볼 수가 없었다. 서점에도 영문서적의 경우, 공산주의의 전략전술이나 세계적화 전략에 대한 책들은 보기 힘들었으며 <이데올로기는 끝났는가>, <소비에트 경제>, <페레스트로이카>, <인권> 등등이 한국의 서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책들로 채워지고 있다.

소련사회에도 청년문제가 심각한 것 같았다. 교육문제, 청년가족문제, 주택문제, 월급문제, 정치적 문제, 아편중독자와 범죄자의 증가문제 등이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며 경제문제의 해결과 관련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정치구조가 무너지고 있으며 미래의 정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앞으로 나갈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 4. 敎育에서의 變化

소련의 교육에서 큰 변화는 역사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비밀서류가 많이 공개됨따라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역사학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역사는 독재자의 의도대로 왜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이 많은 것 같다. 과거의 역사 교과서는 폐지되었으며 새 교과서는 편찬 중에 있고 가르칠 교사도 없어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역사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여러가지 정치적 견해와 사회문제를 비판적 입장에서 강의할 수 있다. 2~3년전 부터는 케인즈이론도 강의하고 있으며 서독과 미국 및 캐나다에서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의 교수도 초청하고 싶다고 했으며 자비부담 조건이라면 한국의 유학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과정은 보수적이어서 정치, 경제적 변화가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교육내용과 방법도 보수적이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시장경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받아드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과거의 필수과목들이 폐지되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련공산당사>가 소련사회의 사회 정치적 역사인 <사회경제사>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이 <철학사>로 <과학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이론 발전사> 또는 <정치학>으로 대체되었다.

#### IV. 北韓에 미치는 영향

소련의 변화는 동유럽에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韓-蘇修交가 이루어질 단계에까지 왔다. 그런데다가 한국의 UN가입도 소련이 반대하지 않아서 가능할 정도가 되가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가고 있다. 이렇게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경제적인 면은 매우 심각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련은 모든 무역을 합리화하기로 작정하였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硬貨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돈으로 하겠다고 선포하였다. 북한은 최대의 무역상대국인 소련으로부터 계속 入超상태에 있으며, 89년의 경우 수입은 14억달러인 반면 수출은 8억9천1백만달러였다. 꼭 필요한 품목만을 수입해온 북한으로 볼 때, 소련으로터의 수입의 감소는 경제발전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油類공급에 관한 문제이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을 위해 총수입액의 20% 이상을 써왔다. 이것이 두배 내지 세배로 오를 뿐만 아니라 국제화폐로 지불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경제는 바야흐로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多元化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소련의 변화에서 오는 정치 경제적인 엄청난 압력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체제유지를 위해서 폐쇄정책을 더 강화시키면서 북한식대로 살겠다는 주장을 밀고 나갈 때는 중국적으로 루마니아식의 체제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갈 수 밖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징조가 남북 총리 회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 시도, 지난 13일에 김일성이 급작스러운 중국방문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련의 변화와 압력은 정치 경제적으로 북한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고 있고 북한을 개방화의 길로 나가게 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8) 李庭植, “北韓과 蘇聯 1990년” 東亞日報, 1990. 8. 19., 7면